

#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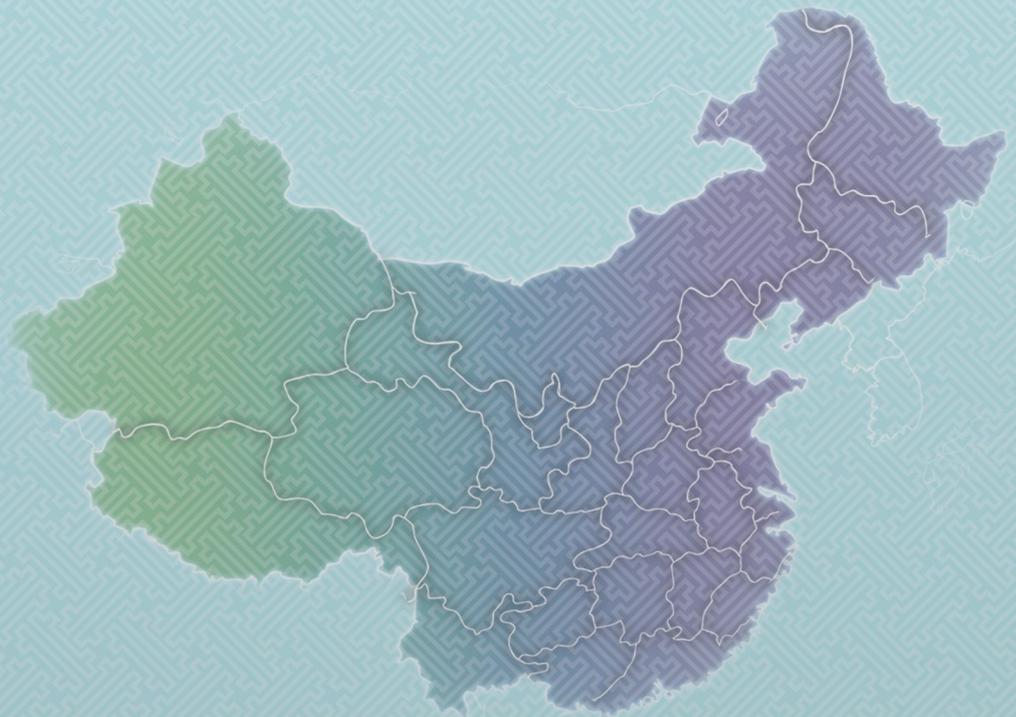
2013년 6월 7일 | Vol. 4 No. 6

ISSN 2093-3282

## 중국 금융개혁 시범추진 현황과 평가: 저장, 광둥, 푸젠성

노수연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 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김홍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 성별연구단 연구원 (hwkim@kiep.go.kr, Tel: 3460-1278)



## 차 례 ●●●

1. 배경
2. 금융개혁시범지역의 개요
3.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4. 결론 및 평가

## 주요 내용

- ▣ 중국은 2012년 3개 지역을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경제와 농촌금융의 발전,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3월), 광둥(廣東)성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7월),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12월)시임.
  - 이들 세 지역은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해 대외개방도가 높고 민영경제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 3개 시범지역에서 발표한 발전방안을 비교한 결과 중국 중앙정부의 개혁기조와 비교적 일치하고, 대외개방의 경우 원저우시의 개인의 해외직접투자·광둥성의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적 특징을 나타냄.

  - 지난해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농촌 및 중소기업 등 금융서비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감독관리 강화, 금융업의 대외개방 확대를 강조한 바 있음.
  - 세 지역의 발전방안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영세기업·농촌지역 금융서비스 확대, 민간금융기관 발전, 금융질서 정립 등에 대한 일련의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음.
  - 그 외 원저우시는 민간자본이 풍부하며, 광둥성은 홍콩과 인접하여 위안화 역외업무 비중이 높고, 취안저우는 화교권과 교류가 활발한 특징을 반영함.
- ▣ 이들 세 지역의 금융시범개혁은 지역단위의 개혁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중국 전체의 금융업 개혁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의의를 가짐.

  - 중국의 과거 개혁사(史)를 보면 지역 차원에서 시범실시한 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향후 개혁방향을 시도하는 시범대로서의 역할을 이들 시범지역이 하게 될 것임.
  - 민간자본의 정규 금융업 진출 및 발전, 금융자본이 실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들 지방금융시범개혁의 관건임.

# 1. 배경

- 중국정부는 최근 금융개혁의 방향을 시장화, 국제화, 민영화로 잡고 있으며, 이는 2012년의 주요 정부회의에서도 확인됨.
- 2012년 1월에 개최된 제4차 금융공작회의<sup>1)</sup>에서는 새롭게 민간금융과 대외개방을 강조하였음(표 1 참고).
- 제4차 금융공작회의에서는 2007년 제3차 회의와 비교할 때 지방정부 채무 문제와 함께 민간자본<sup>2)</sup> 영세기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특히 8대 중점 임무 중 세 가지에 걸쳐 영세기업, 민간자본, 민간대출 문제를 새롭게 다루어 민간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 대외개방의 경우, 제3차 회의에서는 외국금융기관을 국내로 유치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제4차 회의에서는 위안화의 국제화와 개인의 해외투자제한 완화를 중시하는 등 해외진출을 강조했음.

표 1. 제3차 및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의 주요 임무 비교

	제3차 전국금융공작회의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
개최일시	2007. 1. 19 ~ 20	2012. 1. 6 ~ 7
주요임무	국유은행 개혁 심화, 현대적인 은행제도 건설 가속화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우량의 금융서비스 제공, 농촌중소 및 영세기업 등 <b>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b>
	농촌금융개혁 가속화, 농촌금융체계 완비	<b>민간자본의 정규 금융업 참여 등 금융기구개혁 심화</b>
	자본보험시장 발전, 다차원 금융시장체계 건설	<b>민간금융의 양성화 등 금융감독관리 강화, 개선</b>
	금융의 서비스, 조절능력 발휘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대비
	금융업의 대외개방 적극, 안정적으로 추진	자본시장, 보험시장 건설 강화
	금융감독관리능력 향상	금융의 거시조절체계 완비, 경제발전과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촉진
	-	<b>대외개방 확대</b>
-	금융기초건설 강화	

자료: 中国证券网(2007. 3. 2), 「温家宝在2007年全国金融工作会议上的讲话(全文)」; 「人民日报」(2012. 1. 30), 「温家宝: 大力整顿金融秩序 严打高利贷和非法集资」.

- 아울러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에서도 △ 환율과 금리의 시장화 △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의 점진적 실현 △ 민영금융기구의 발전 가속화를 강조하였음.

1) 전국금융공작회의는 1997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금융부문의 최고 회의로, 이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금융분야 개혁방향을 제시해 왔음.  
 2) 중국 내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주체 중 정부부문을 제외한 기업 및 가계 부문의 자산을 일컫음.

■ 특히 민영경제는 주요경제지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음.

- 민영기업은 2011년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인 전체 공업기업의 79.9%를 차지하고, 공업총생산의 62.5%와 이윤총액의 65.4%를 차지하는 등 민영경제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절반을 상회했음.

표 2.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개, 억 위안, 억 달러, %)

	기업 수	공업총생산	자산총액	매출액	이윤총액	수출입 무역		
						전체	수출	수입
전체	325,609	844,269	675,797	841,830	61,396	38,669.8	20,487.8	18,182
국유기업	8,262	97,852	137,368	101,960	5,722	7,517.1	2,562.8	4,954.3
외자기업	57,216	218,417	161,988	216,304	15,494	18,940	10,227.5	8,712.5
민영기업	260,131	528,000	376,441	523,566	40,181	12,210.6	7,699.1	4,511.5
민영기업 비중	79.9	62.5	55.7	62.2	65.4	31.6	37.6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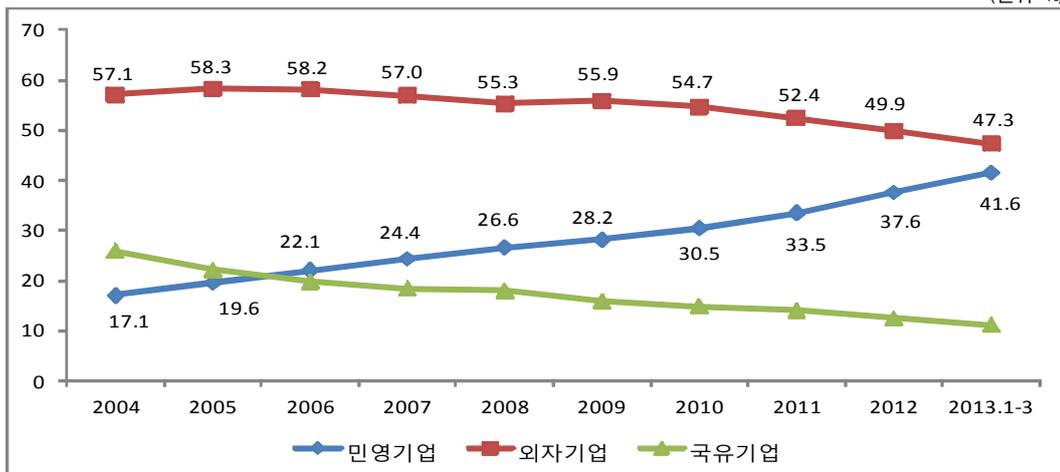
주: 1) 기업 수, 공업총생산, 자산총액, 매출액, 이윤총액은 2011년 수치이고, 수출입 무역은 2012년 수치임.  
 2) 매출액이 연간 2,000만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함.  
 3) 국유기업의 범주에는 국유기업, 국유연영(聯營)기업, 국유 및 집체 연영기업, 국유독자공사(公司)가 포함되며, 외자기업에는 홍콩, 대만, 마카오 투자기업도 포함됨.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2), 「中國統計年鑑」; 商務部(2013, 4), 「中國對外貿易形勢報告(2013年春季)」.

- 특히 수출의 경우,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던 외자기업의 비중이 2004년 57.1%에서 2013년 1~3월에는 47.3%로 감소한 반면, 민영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1%에서 41.6%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함.

그림 1. 중국 3대 유형 기업의 수출 비중 변화(2004~2013. 3)

(단위: %)



자료: 商務部(2013, 4), 「中國對外貿易形勢報告(2013年春季)」.

- 민영경제의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중국정부는 2012년 민영경제가 대표적으로 발달한 지역을 금융개혁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민영기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 중소기업, 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된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 민영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민영기업 및 자영업자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며,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여 금융서비스 분야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1개 지역에서만 금융개혁을 할 경우 개혁속도가 너무 느리고, 개혁과정에서 다량의 자본이 이곳으로 몰려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다수의 시범지역을 선정해 동시에 추진하면서, 각지의 특징을 결합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이에 민영경제가 발달하고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외개방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윈저우, 주장삼각주, 취안저우를 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경제의 활성화,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함.

## 2. 금융개혁시범지역의 개요

- 중국은 2012년 저장성, 광둥성, 푸젠성에 위치한 3개 지역을 금융종합개혁시범구로 지정하였음.
-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은 금융개혁을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지정됨.
- 구체적으로는 저장(浙江)성의 윈저우(溫州), 광둥(廣東)성의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 푸젠(福建)성의 취안저우(泉州)시가 그 대상임.

표 3.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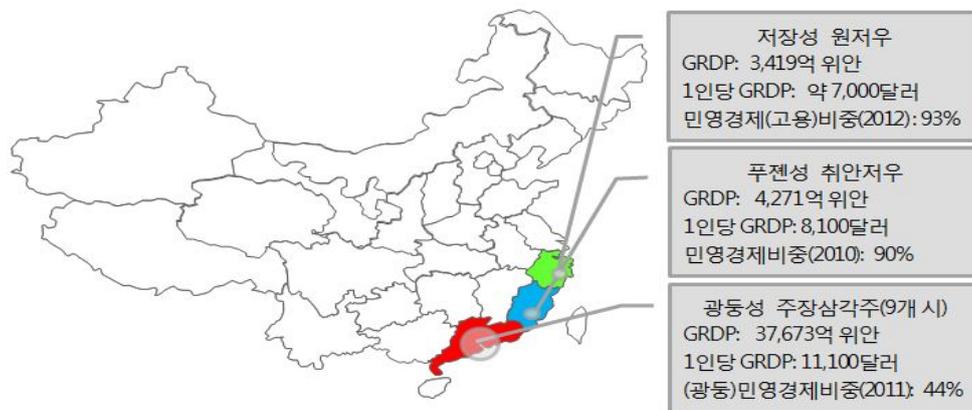
	윈저우시	주장삼각주 9+2	취안저우시
명칭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	금융개혁혁신종합시범지역	실물경제 기여(서비스)형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
지정 일시	2012. 3. 28	2012. 7. 25	2012. 12
문건 명칭	저장성 윈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 총체방안	광둥성의 주장삼각주 금융개혁혁신종합시범지역 건설 총체방안	푸젠성 취안저우시 금융의 실물경제 기여형 종합개혁시범지역 총체방안
대상지역	지급시 1개	지급시 11개	지급시 1개
소재지	저장성	광둥성	푸젠성

주: 지역별 계획의 중국어 명칭은 순서대로 「浙江省溫州市金融綜合改革試驗區總體方案」, 「廣東省建設好珠江三角洲金融改革創新綜合試驗區總體方案」, 「福建省泉州市金融服務實體經濟綜合改革試驗區總體方案」임.

자료: 필자 정리.

- 이들 세 지역은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해 대외개방도가 높고 민영경제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원저우시와 주장삼각주 지역, 취안저우시는 모두 1979년 개혁개방 이후 민영경제가 발전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순서대로 원저우모델, 주장모델, 취안저우모델로 요약됨.
- 세 민영경제발전모델은 발전주체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음. △ 원저우모델은 개인 창업의 전통이 강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고 △ 주장모델은 홍콩과 인접한 이점 때문에 외국기업이 경제의 핵심주체가 되었으며 △ 취안저우모델은 취안저우가 대표적인 화교들의 고향인 만큼 화교자본이 투입된 향진기업(鄉鎮企業)이 주축이 됨.

그림 2. 금융개혁시범지역 분포 및 현황(2011년)



주: 참고로 2012년 중국 전체 GDP에서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임. 또한 2011년 저장성의 GRDP 중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74.2%임.

자료: 浙江统计局(2012. 9. 8), 「温州民营经济发展状况与对策研究」; 江峻任·官鸣(2011), 「泉州市民营经济技术创新现状分析」, 「技术与创新管理」2011年06期; 「经济日报」(2013. 2. 2), 「民营经济占GDP比重超60%」; 「重庆日报」(2012. 10. 19), 「扩大开放是民营经济做大做强的根本出路」; 「南方日报」(2012. 3. 23), 「广东2011年民营企业国内贷款比重仅为12%」.

- 원저우시에는 40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분포하며, 2012년 민영부문의 고용비중은 93%에 달함<sup>3)</sup> 그러나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존의 풍부한 민간금융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광둥성은 중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지역총생산(GRDP)의 약 80%가 주장삼각주에서 발생함. 또한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 전체 위안화 역외업무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sup>4)</sup> 위안화의 국제화 시범사업을 확대하기에 적합한 곳임.
- 취안저우시는 개혁개방 이래 민영경제가 연간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으며<sup>5)</sup> 특히 의류방직, 신

3) 贾西猛·席得让(2013), 「从温州信贷危机谈“金融改革”」, 「经济师」, 2013年第2期

4) 中国人民银行广州分行 货币政策分析小组(2012), 「2011年广东省金融运行报告」.

발, 석유화공, 석재 등의 수출이 활발했음.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음.

### 3.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 3개 시범지역의 총체방안은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임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음.

- 공통적으로 △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 △ 금융기구 개혁의 심화 △ 금융감독관리의 강화 △ 대외개방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춤.

표 4. 지역별 금융개혁실험 총체방안 내용

	원저우	주장삼각주 9+2	취안저우
농촌중소 및 영세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영세기업, 3농 금융상품 및 서비스 발전	-농촌금융서비스시스템 혁신 -농촌금융발전환경 개선 -민생보장 · 대외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한 전문 보험 서비스 발전 -중소기업의 융자문제 해결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금융조직시스템건설 -영세기업, 민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농촌금융서비스 인프라 제고
민간자본의 정규 금융업 참여 등 금융기구 개혁 심화	-신형금융조직(비은행계, 촌진은행, 농촌금융) 발전 -전문자산관리기구 발전 -지방금융기구개혁	-현대금융시장체계 건설(채권, 재산권, 지분) -금융조직체계 개선 -도농통합발전을 지원할 금융서비스체계 형성	-기업의 직접융자규모 확대
민간금융의 양성화 등 금융감독관리 강화, 개선	-민간(용자)금융의 규범화 발전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지방금융관리체계 개선	-사회신용시스템 및 관련 사법 관리기제 마련	-민간용자(금융)의 규범화 발전
대외개방 확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시범사업 전개 연구	-홍콩마카오와의 금융합작수준 제고	-대만 · 홍콩 · 마카오 화교자본과 금융협력 강화

자료: 「浙江省溫州市金融綜合改革試驗區總體方案」(2012), 「廣東省建設珠江三角金融改革創新綜合試驗區總體方案」(2012), 「福建省泉州市金融服務實體經濟綜合改革試驗區總體方案」(2012)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5) 牛祿青(2013. 2. 5), 「地方金融改革闯关」, 『新經濟導刊』.

## 가.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

- 원저우시는 영세기업과 농촌·농업·농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영세기업 용자 종합서비스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영세기업이 채권시장을 통해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채권상품을 개발하고, 재담보시스템도 수립할 계획임.
  
- 광둥성은 주장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메이저우와 잔장시에서는 농촌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추진함.
  - 주장삼각주 지역은 중소기업의 용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중소기업이 단체로 발행하는 채권(集合債)이나 어음 규모를 확대함.
  - 광둥성은 메이저우시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금융조직 및 서비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
    - 메이저우시는 광둥성의 대표적인 농업도시로서, 다양한 농촌금융개혁이 시도되어 성과를 올린 바 있음.<sup>6)</sup>
    - 촌진은행·농촌자금호조사(農村資金互助社) 등 신형농촌금융기관을 발전시키고, 농촌택지사용권·토지승포경영권(承包經營權)의 저당대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신용대출시장을 발전시킴.
  - 잔장시에서는 도농금융개혁을 시도해 도시 금융의 농촌, 농민, 농업에 대한 지원도를 높임. 또한 농업개발, 산업이전단지 건설, 농촌 기초시설 건설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함.
    - 잔장시는 '잔장 모델'이라 불리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거둔 성과<sup>7)</sup>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혁내용에도 보험 분야가 포함됨.
  
- 취안저우시도 소형, 영세기업과 민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촌금융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금융지원이 영세기업에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영세기업 전용 대출심의 녹색통로를 개통하는 등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임.
    - 영세기업 대출 전용 금융채 발행을 지원하고 취안저우 시정부가 발기해 비영리성 영세기업 용자담보, 재담보 기구를 설립함.
  - 취안저우시 정부는 2013년 4월 '금융업 발전 장려를 위한 의견(시범운영)<sup>8)</sup>'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을

6) 『第一财经日报』(2013. 1. 11), 「农村金融“梅州特色”: 一块信用村牌匾补金融空白」.

7) 『第一财经日报』(2012. 9. 17), 「湛江模式: 打破医保城乡二元割裂」.

- 대상으로 장려금, 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함<sup>9)</sup>
- ‘의견’에 따르면 신규대출 중 제조업 대출이 60% 이상이면 10만 위안을 지급하고, 영세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총액에 따라 최소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이상까지 지급함으로써 금융업이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sup>10)</sup>
- 취안저우 시 소재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음.<sup>11)</sup>
- 영세기업 금융지원 사업 차원에서 민생은행 취안저우 지점이 용자 플랫폼을 통해 영세기업 지원채권 16억 위안을 발행했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 발전단계별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저당물의 인정범위를 넓혀 대출대상을 확대함.
- 또한 과학기술과 금융을 결합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하이테크 기업 지분담보대출 등을 추진함.
- 농촌금융서비스의 경우 농촌 신용사를 농촌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농촌 인프라 사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며, 농업보험이나 농촌생명보험 등을 확대함.

## 나. 금융기구개혁의 심화

- 중국정부는 금융기구개혁의 일환으로 △ 금융기구의 지분을 다양화하여 국유자본의 독점을 철폐하고 진입조건을 완화하며 △ 민간자본이 금융서비스 영역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고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구 제도개혁 및 증자(增資)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 원저우시는 민간분야의 금융활동과 관련해 민간자금이 촌진은행, 대출회사 등 지방금융기구 개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자금이 벤처투자기업, 지분투자기업, 투자관리기구 등을 설립하도록 장려함.
- 민영기업이 주축이 되어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로써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됨.
- 기존의 농촌합작은행을 농촌상업은행으로 전환해 2013년 4월 최초로 룡완농상은행(龍灣農商銀行)을

8) 중문 명칭은 關於鼓勵金融業發展的若干意見(試行)임.

9) 『泉州晚报』(2013. 4. 17), 「泉州市<关于鼓励金融业发展的若干意见(试行)>出台」.

10) 그 외 취안저우시에 신규로 금융기관이 입주하면 등록자본규모에 따라 100만~2,000만 위안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해주며, 임대할 경우에는 연 임대료의 15~30%를 보조해줌.

11) 吳國培(2013), 「泉州金融綜合改革的探索」, 『中國金融』, 2013年第3期.

개업했음. 룡완은행의 주주는 200여개 기업이며, 8억여 위안의 민간자본을 흡수함.<sup>12)</sup> 2013년 한 해 동안 9개의 농촌합작은행에 대한 개조작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5개에 대한 개조를 완성할 계획임.<sup>13)</sup>

- 2012년 3월 웨칭둥티에민간자본관리주식회사(樂清東鐵民間資本管理股份有限公司)가 시범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 4월까지 총 6개의 민간자본관리회사가 설립됨.
- 또한 민영기업이 발기한 촌진은행이 상부보고를 준비 중이고, 3개 민영기업이 발기한 보험회사도 보고를 준비 중임. 쥘야오그룹(均瑤集團)의 투자신탁회사와 썬마그룹(森馬集團)의 리스금융회사도 설립을 준비 중임.<sup>14)</sup>

■ 광둥성은 대형 은행 위주인 기존 금융시장 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함.

- 자산관리회사, 리스금융회사, 자동차리스회사, 외환거래회사 등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진출 및 발전을 촉진
- 은행 외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담보대출회사, 회계사무소, 증권투자자문회사, 보험평가기구, 신용평가기구 등 각종 금융기관의 발전을 촉진시킴.
- 중소기업 금융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촌진은행, 대출회사 등 지방중소금융기구의 건설을 지지함.
- 기업의 직접유자를 확대하기 위해 채권발행주체 발행 및 거래 방식상의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에 소재한 비상장기업의 지분매매시장을 만들 계획임.

■ 취안저우시는 지방 소재 금융기관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존의 금융기관체계를 다원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가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함.

- 촌진은행, 파이낸스회사, 리스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을 적극 발전시킴.
- 취안저우은행, 취안저우 관할 내의 농촌상업은행, 농촌신용협작사 등 지방현지법인 금융기관의 발전을 도모함.
- 민간자본 지방금융법인의 지분투자를 지지하여, 지방금융기관의 자본력을 강화함.

12) 龍灣農商銀行(www.lwrcb.com)(검색일: 2013. 5. 7).

13)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최초의 시도는 아님. 2011년에 이미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농촌합작은행을 모두 농촌상업은행으로 개조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후베이(湖北)성 등에서 전국적으로 이미 개혁사례가 있음.

14) 人民網(2012. 11. 23), 「溫州金融綜合改革12條實施細則全文公布」.

## 다. 금융감독관리의 강화

- 중국정부는 금융질서를 대폭 정돈하여 고리대금 활동, 불법 자금모집, 지하금융, 불법증권 등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엄중 차단할 것을 지시함.
  - 담보회사, 전당포 등의 기구와 은행의 부외업무(簿外業務)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윈저우시는 첫 번째 과제로 민간용자<sup>15)</sup>를 규범화하는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민간용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건설할 것을 밝힘.
  - 2013년 4월에는 중앙부처에 ‘저장성 윈저우 민간용자관리조례’ 입안을 보고함.<sup>16)</sup>
    - 아울러 ‘민간용자관리조례’ 초안은 총 9장 1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대출의 연 금리 상한선을 48%로 정한 것이 특징적임.
  - 민간용자종합금리지수인 윈저우지수를 발표하는 등 민간용자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윈저우시 금융공작판공실과 지방금융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민간용자시장의 자금가격 추세와 변동 상황을 제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up>17)</sup>
    - 2012년 3월 윈저우시 및 저장성 최초의 민간대출등기서비스센터(溫州民間借貸登記服務中心)가 루청구(鹿城區)에 설립되었고, 2013년 4월까지 4개 센터가 설립되었음.
  
- 광둥성은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법집행능력 및 정보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금융감독관 리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금융전문법원 및 중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금융법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금융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

15) 민간용자는 법정금융기구 이외의 대출자 간에 금전대차 및 어음을 포함한 유가증권거래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함.

16) 『证券日报』(2013. 4. 22), 「温州民间融资管理条例立法将提速」; 财经网(2012. 11. 19), 「温州民间融资管理条例已起草完毕 共9章117条」.

17) 윈저우시는 소액대출회사, 민간자본관리회사, 민간대차서비스센터, 기업, 민간대차위탁감독관리지점, 전당포 등이 신고한 용자사례 1,000건을 수집해 민간용자금리를 계산하여 2012년 12월 7일부터 윈저우지수를 매주 1회 발표하고, 2013년부터는 매일 발표하고 있음. 2012년 12월 7일 윈저우지수는 21.43%였고, 2013년 5월 2일에는 20.05%였음. 温州市金融工作办公室 홈페이지(www.wzjrb.gov.cn)(검색일: 2013. 5. 3).

- 인민은행의 신용조회관리 및 시스템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의 신용기록을 공유, 취합하여 ‘사회신용체계를 만들 계획임.
  - o 사회신용체계의 다른 말은 국가신용관리체계로, 금융시장질서를 정립하는 데 신용정보를 이용함.
- 취안저우시 정부는 ‘취안저우 금융대응책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경보 및 상황통보·감독기제·업무연계대응 등 지방금융 리스크 관리방안을 강화할 계획임.

## 라. 대외개방 확대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3대 시범지역 중 원저우 시에서만 유일하게 추진되는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외송금규정을 완화해야 함.
- 이는 원저우시의 막대한 민간자본 투자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광산 등으로만 쏠리던 투기성 투자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기 위해 해외송금기준 등 중국의 외환관리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함.
- 광둥성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홍콩, 마카오, 대만, ASEAN 등과의 금융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첸하이(前海)신구를 중심으로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위안화를 무역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등 위안화의 경외 유통과 사용을 확대하고, 형친(橫琴)신구와 첸하이신구에서 자본항목의 태환을 시범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홍콩에 소재한 은행이 선전의 첸하이(前海)지역 기업에 위안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음(표 5 참고).
  - o 이전까지는 홍콩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만 위안화 대출이 가능해 중국 본토로의 대출을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2012년 7월 선전 첸하이 신구가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홍콩 은행이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에 직접 위안화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됨.
  - o 이에 따라 2013년 1월 홍콩 소재 은행 15곳과 첸하이 소재 기업 15곳이 80억 위안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 1건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홍콩은행과 첸하이 소재 기업간 협약이었으며, 금리는 4~5% 수준임. 이 대출자금은 첸하이 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임.<sup>18)</sup>

18) 현재 중국의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 수준이며, 80억 위안의 대출이자를 홍콩지역 은행에서 제공하는 최혜우대율인 4%로 계산할 경우 매년 1.6억 위안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樊帆·黄逸云(2013. 1. 28), 「80亿跨境贷款涌入前海

표 5. 홍콩 소재 은행의 경내 위안화 대출 기업 리스트

연번	은행 명칭	대출기업
1	中國銀行(香港)有限公司	康佳光電技術, 騰訊電商信息技術, 中興供應鏈, 中興云服務
2	中國工商銀行(亞洲)有限公司	前海開發投資控股有限公司, 順風電子商務, 寶通天下供應鏈, 粵海全球供應鏈
3	香港上海滙豐銀行有限公司	前海開發投資控股有限公司, 順風電子商務
4	大新銀行集團有限公司, 恆生銀行有限公司, 交通銀行香港分行	前海開發投資控股有限公司
5	國家開發銀行香港分行, 中信銀行(國際)有限公司, 中國銀行香港有限公司, 渣打銀行	前海開發投資控股有限公司
6	招商銀行香港分行	前海開發投資控股有限公司, 寶通天下供應鏈, 華爾潤現代物流有限公司
7	香港永隆銀行有限公司	寶通天下供應鏈, 華建投資
8	東亞銀行 南洋商業銀行	深圳前海廣大物流有限公司 中鐵二局瑞隆物流有限公司
9	農業銀行香港分行	深圳石油化工交易所, 前海石油化工產業發展
10	建設銀行香港分行	前海開發投資控股有限公司, 深圳市華訊方舟科技有限公司
11	建設銀行深圳分行 交通銀行深圳分行	香港華孚貿易有限公司, 聯富國際(香港)有限公司 寶能國際(香港)有限公司

자료: 樊帆, 黃逸云(2013, 1, 28), 「80億跨境貸款涌入前海 銀行爭送億元紅包」, 『21世紀經濟報道』.

- 외국과의 금융협력의 경우, △ 광둥성 소재 금융기관 및 기업이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 신탁투자자금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광둥성 소재 홍콩계 은행의 증권투자자금 판매를 허용하며 △ 대만과의 금융협력을 위해 둥관(東莞) 시에서 양안금융합작시범사업을 전개하고 △ ASEAN과의 지역개발지분투자자금 조성 가능성을 모색함.

■ 취안저우시는 대만, 홍콩, 마카오, 화교와의 금융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취안저우 현지의 민간자본은 4,000억 위안 규모이나 취안저우 출신의 화교자본까지 포함하면 2조 위안에 이룸.<sup>19)</sup>
- 특히 대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대만 금융기관의 취안저우 진출을 지원할 것임.
  - 또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2013년 말까지 모든 증권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취안저우-대만 합자 증권회사를 설립하고 대만은행을 유치하며, 두 지역 간의 위안화 역외(offshore) 업무를 전개할 계획임.
- 외국계 은행 유치 및 대만과의 금융협력 강화 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둠.
  - 필리핀계 은행인 메트로뱅크(MetroBank, 首都銀行) 취안저우 지점이 2013년 4월 26일 개업함. 이는

銀行爭送億元紅包」, 『21世紀經濟報道』.

19) 吳國培(2013), 「泉州金融綜合改革的探索」, 『中國金融』, 2013年第3期.

외국계 은행으로서는 10여 년 만이며, 화교계 은행으로서는 처음임.<sup>20)</sup>

- 중국공상은행은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해 위안화의 역외 거래나 경내 기업의 담보화에 해외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内保外貸) 등의 업무에서 대만은행과 협력하고 뉴타이완달러 환전소를 증설할 계획임.<sup>21)</sup> 또한 해협지분거래센터 취안저우운영센터 건설을 준비 중임.

## 4. 결론 및 평가

■ 중국정부는 금융종합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지역 선정 및 개혁내용 수립에서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들 3대 금융개혁시범지역은 시범지역 지정이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지역들임.
- 일례로 주장삼각주 지역을 금융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2008년 발표된 ‘주장삼각주지역 개혁발전계획(2008~20)’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음.
- 2011년 10월 원자바오 국무총리가 윈저우시를 시찰할 때 저장성 및 윈저우시 정부 관계자가 윈저우시에 금융개혁시험구 설립을 먼저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아주 획기적이거나 참신한 개혁내용을 새로 발표하기 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이미 시도했거나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윈저우시에서 이미 2011년에 제기한 바 있음.
- 메이저우시와 잔장시에서 각각 추진하는 농촌 및 도·농 금융개혁도 시범지역 지정 이전에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따라서 중국정부는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에서도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는 생략하고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중국정부의 금융개혁 방향을 민영화, 시장화, 국제화로 볼 때 3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내용에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에 관한 개혁은 포함되지 않음.
- 윈저우시 정부가 중앙정부에 상정한 개혁방안 원안에는 은행금리 시장화 개혁 시범사업이 포함되었음. 이는 윈저우 소재 은행이 대출금리를 중앙은행에서 공포하는 법정 대출금리의 4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고, 금리는 여신/수신자 양측의 협정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최종 총체방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됨.

20) 东南网(2013. 5. 14), 「实体经济扎实机构抢滩 泉州“金融家族”扩营」.

21) 人民网(2013. 5. 10), 「工行泉州分行“六个力争” 助力金改支持实体经济发展」.

○ 또한 제4차 금융공작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대비 등에 관한 내용도 시범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 3개 시범지역은 공통적으로 민간경제, 농촌금융, 대외개방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음.

- 이들 3대 개혁시범지역은 공통적으로 민영경제와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개혁방향은 대동소이하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서는 지역별로 일부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원저우시는 △ 민간 분야의 금융활동 장려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추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본시장 육성 등을 추진함. 특히 저장성 경제의 주요 특징인 전문시장(專業市場)<sup>22)</sup>과 산업클러스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임.

○ 광둥성은 시범지역이 11개 지급(地級)시에 달해 시범지역 중 대상지역범위가 가장 넓고 개혁내용 또한 가장 광범위함. 이에 따라 도·농 간 불균형 축소를 위해 도시, 농촌, 도·농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도 광둥성에서만 추진하고 있음.

○ 취안저우시는 원저우시와 전체적인 내용이 유사하나 △ 실물경제가 발전하는 데 금융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 화교자본을 이용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특징적임.

- 향후 △ 민간자본의 정규 금융업 진출 및 발전 가능성과 △ 금융자본이 실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들 지방금융시범개혁 성패의 관건임.

■ 가장 먼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원저우시의 경우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는 눈에 띄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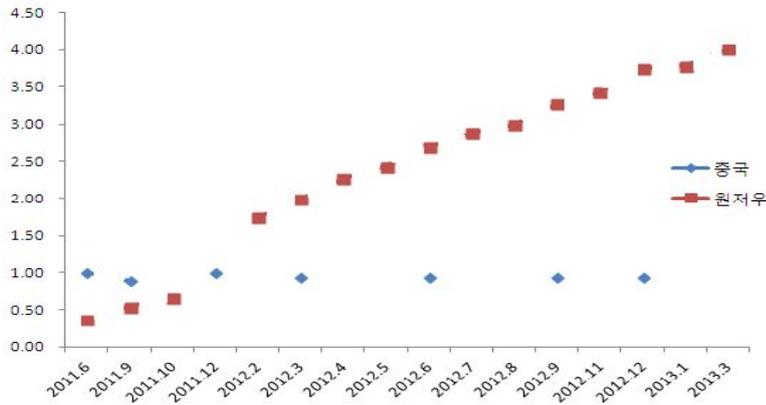
- 이는 원저우시가 금융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권이 없어 국부적인 시범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임. 또한 민간대출금리, 민간금융기구 자금공급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상의 개혁도 요구됨.

- 개혁 이후에도 부실대출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융자난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거나 융자금리가 현저히 하락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음.<sup>23)</sup>

22) 전문시장이란 특정상품 거래를 위한 도매시장을 의미하며, 저장성 전문시장과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내용은 이상희(2012), 「저장성 전문시장 발전 현황 및 특성 사례연구」와 노수연·이상희(2012), 「저장성 산업지도 - 4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를 각각 참고할 것.

23) 『金融时报』(2013. 3. 29), 「温州金融改革一周年反思」.

그림 3. 중국과 원저우 시의 부실대출률 (단위: %)



자료: 중국 전체 부실대출률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cbrc.gov.cn)(검색일: 2013. 5. 15); 원저우 부실대출률은 『经济参考报』(2013. 3. 7), 『温州民企借贷危机发酵 不良贷款率3.79%』; 『第一财经日报』(2012. 10. 12), 『融资“怕”弥漫温州:不良贷款率升至3%』; 招商银行(2012. 11. 1), 『温州不良贷款率上升至3.27% 行长开会间计』; 路透(2011. 12. 7), 『温州10月银行不良贷款率续升』.

○ 중국 내 상업은행의 부실대출률이 2012년 1/4분기 0.94%에서 4/4분기에는 0.95%로 0.01%포인트 상승한 데 반해, 원저우시의 부실대출률은 2012년 3월 1.99%이던 것이 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3년 3월에는 4.01%에 달함.

○ 또한 민간대출등록서비스센터 4곳에서 성사된 거래액은 5억 위안인데, 이는 원저우의 민간자본이 6,000억 ~8,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sup>24)</sup>

○ 이처럼 센터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센터의 수속이 복잡하고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즉 은행대출은 수속이 복잡한 대신 금리가 낮고, 민간대출은 금리가 높은 대신 저당이나 담보가 불필요한 것과 비교할 때 강점이 없는 셈임. 또한 민간대출은 비밀이 보장되는 데 반해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순간 기업의 자금난, 경영난이 오히려 공개되는 위험부담이 있음.

■ 개혁과정에서 지역 단위 개혁이 갖는 한계, 당초 취지와 다른 전개 우려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중국의 금융개혁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범지역에서 진행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위의 금융개혁 시범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음.<sup>25)</sup>

24) 『法治周末』(2013. 4. 10), 『温州金融闹尾 民间借贷受宠』.

25) 葛楠, 葛兆强(2012), 『进一步深化中国金融改革问题研究』, 『南方金融』, 2012年7期.

- 각종 심사비준권한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해 거남(葛楠) 등(2012)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이미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이며, 새로운 금융개혁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파급효과가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따라서 향후 금융개혁은 중앙정부의 설계가 강화되어야지, 하의상달(下意上達)식의 국부적인 개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음.<sup>26)</sup>
- 또한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대출을 확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기업이 직접 금융기관을 설립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실물경제와 괴리된다는 우려도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과거 개혁사(史)를 보면 지역 차원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척이 다소 더디더라도 향후 개혁방향을 시도하는 시험대로서의 역할을 이들 시범지역이 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이들 지역의 개혁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일례로 국무원은 지난 5월 7일 개인투자자의 해외 직·간접 투자를 허용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제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음.<sup>27)</sup>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지역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윈저우시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윈저우시는 2011년 초 중국 최초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윈저우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시범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가 시행이 무산된 바 있음.<sup>28)</sup>
- 그러나 개인의 해외직접투자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중앙기업, 국유기업, 대형 민영기업이 과거 해외직접투자에서 특별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보다 더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개혁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으며, 관련 계획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개혁성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들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은 앞서 살펴본 3대 시범지역 이외에도 현재 상하이, 톈진, 충칭 직할시와 후난성 창주탄(長株潭) 도시군 등에서도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sup>29)</sup> 향후에도 금융개혁시범지역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KIEP**

26) 葛楠, 葛兆强(2012), 전게서.

27) 新浪财经(2013. 5. 7), 「为建立境外投资制度叫好」.

28) 자세한 내용은 최보연, 노수연(2011), 「윈저우(温州)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정책 시행보류: 주요 내용과 전망」.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참고.

29) 中新网(2012. 12. 3), 「周小川: 中国金融改革允许“试错”」.